

전통주거의 자연경관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in Korean Traditional House

鄭英喆*
Chung, Young-Chul

Abstract

The harmony with the nature and the linkage to the natur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house which enables the dweller to possess the nature inside. Korean Traditional Houses are linked to the encircling natural environment and to the natural landscape through a visual structu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rinciple of introducing the natural landscape in Korean traditional house.

Keywords : Introduc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Visual Structure, 3 Viewpoint of Landscape Painting

I. 서론

기가 살아 흐르는 명당에 위치한 전통주거는 자연 속에 위치하며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자연과의 조화, 휴먼 스케일 등을 특징으로 한다. 지리적으로나 종교적, 문화적인 사고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통주거는 자연을 건축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이 뛰어났다. 특히 전통주거는 자연과의 조화가 가장 큰 특징이듯 내부와 외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자연과 생활의 조화를 찾으며 자연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자연경관을 도입(導入)했으며, 건축과 자연환경을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연결시킬 뿐 아니라 자연경관에 대한 시각적 연결구조도 보인다. 자연경관은 인간생활의 장이자 사고와 영감의 원천으로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주거를 비롯한 많은 건축의 계획에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경관의 개념과 전통적 자연관을 고찰하고 전통주거가 어떻게 자연을 도입하며 주변을 경관화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인들이 같은 풍토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이룩한 문화적 소산인 사고방식,¹⁾ 자연관을 고찰하여 자연환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인식하고 경관을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전통건축이 풍수와 지리적 체계에 따르는 건축과 자연의 실질적 및 시각적 연결 등 자연을 수용한 특징을 가지므로, 시각구조의 관점에서 전통주거건축에 나타난 건축과 경관의 관계 및

자연을 건축내부에 끌어들이는 수법을 고찰한다.

II. 자연경관의 개념과 전통적 자연관

1. 자연경관의 개념

경관의 개념은 비교적 근세에 형성되었으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형태로 된 것은 16세기에서 17세기초 네덜란드의 풍경화가들이 시골(rural)의 경치를 일컫는 데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경치 혹은 특별한 풍경을 말하는데 이 용어가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²⁾ 경관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바깥 세계이지만 외계 자체만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심상으로서, 자연과 그 변형에 대한 가치체계, 자연관이 구체적으로 토지 위에 반영되어 구축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은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되며 외부적 무질서를 내부적 질서화함으로써 인간과 환경과의 안정된 정서적 결합을 도모하여 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인간은 환경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접촉한다’³⁾는 것처럼 사람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감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고 의미부여하여 문화화한다. 즉 사람들은 객체로서의 자연을 그대로 경관으로서 이용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화하기도 하고 외관의 조작을 통해

*정회원,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경일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1) 윤택립,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3, p. 10
2) 이장준, 『관광지리자원학』, 서울: 대왕사, 1974, p. 54
3) 이광규,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1980, p. 186

경관화하는 것이다.

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여러 사회문화가 복합된 자연과 문화의 종합적 산물로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포함된다. 한편 경관은 총합적 시각적 성질로서 파악되는데, 객체로서의 경관과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에 따른 경관상이란 인자의 상호관계로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통주거를 둘러싸서 안락함과 영역성, 중심성을 주는 주변의 자연환경은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객체적 위요경관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지각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위요경관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시각적 대상경관은 조망경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주거건축에서 자연경관은 주변의 시각적 자연환경으로서 산과 물, 들, 주거 내부의 정원과 외부공간 들로 규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 자연경관은 주거건축을 둘러싸는 위요경관, 건축물에서 바라보이는 시각대상으로서의 조망경관 그리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생활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대상으로서의 외부자연환경, 자연을 조작하여 인공을 가미한 경관요소 등을 포함하기로 한다.

2. 전통적 자연관

인간존재와 삶을 위한 환경을 연출하고자 하는 문화장치인 건축과 경관은 자연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므로 경관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관 또는 세계관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곧 자연의 대상이나 현상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관을 해석하려는 사고방식이다. 기층종교로서의 민간신앙과 도교, 불교, 유교는 우리나라의 경관구성에 크게 관여해 왔다.

첫째 민중의 기층신앙으로서 자연숭배사상, 풍수신앙, 사머니즘 등이 얽혀 복합체를 구성하는 민간신앙은 모든 존재물에 정령이 있어 그것들에게 제의를 베풀고 기복하는 신앙이다. 자연숭배사상은 자연이 정령을 갖는다고 보며 자연을 인격화시킴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관은 음양사상과 결합되어 풍수지리설로서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주환경조성의 규범이 되었다. 풍수에서는 대지가 신화적 공간으로서 살아있는 공간이므로⁴⁾ 건축물도 살아 있는 땅에서 기를 얻는 생명체로 상징화된다.

둘째 도교는 이상향인 선경과 자연을 지향하는 사고로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천인합일 곧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천하만물의 시원인 도는 우주의 자연법칙과 인생의 영원원칙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삶과 모든 원리와 규범은 자연에 순응, 조화해 가야 한다. 도교의 신선사상은

사머니즘의 자연숭배사상, 풍류취향 또는 음양사상과 결합되어 주거나 각 건축의 공간에 표현되게 되었다. 무위자연의 상태에서 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조용히 은둔할 수 있는 산림과 강호, 즉 산수를 애호하게 되었고, 사대부들은 도교적 은둔과 은일을 동경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별서정원을 많이 조성하게 되었다.

셋째 불교는 윤회사상 등 자연존중의 원리를 지니면서 민간신앙과 함께 선인들의 정신 및 예술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자연이란 중생의 생활무대로서의 산천초목을 지칭하는 기세관(氣勢觀)에서부터 연기의 세계로서 끊임없이 생멸변화하는 가시적, 감각적 세계인 현상계까지를 지칭한다.⁵⁾

불교에서는 자연 현상을 끊임없이 생성소멸해가는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과 동화하려는 관념에서 모정원지를 경영하기도 했다.

넷째 유가는 하늘 곧 자연을 본받으려는 점에서 노장의 무위자연과 뜻을 같이 하지만 천인합일을 위한 인간의 노력, 인위를 중시한다. 자연 속에서의 모든 사물은 그것과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한 부분이므로 자연은 곧 관념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어⁶⁾ 사물을 머리와 마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자연경관의 구성요소들은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 의미체로 이해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 자연관에 있어서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대자연의 일부분으로 이해한다. 자연경관도 단순히 물리적인 개체만이 아닌 초월적 힘과 생명력을 지니며 살아 숨쉬는 존재인 것이다.

III. 자연경관의 도인

1. 위요(圍繞) 경관

전통주거에 있어서 자연경관의 도인은 집터를 선정하는 입지에서부터 주거의 공사 과정, 주거의 외부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거건축은 복거(福居)를 위해 명당을 선정하는 입지로 시작되는데, 명당은 양호한 지리와 생리, 인심, 산수가 어울린 배산임수의 길지로 장풍득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생활영역은 산자락들이 연결되는 외청룡과 외백호, 조산 앞의 큰 개울 외수와 같은 경관요소들로 인해 한정된 외부공간과, 좌청룡과 우백호, 안산, 내수의 경관요소들로 장소성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내부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즉 주변의

4) 윤희택, 자연관이 건축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건축, 1979, 2., p. 4

5) 氣勢觀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든 관념. 조용길, 불교에서 본 인생과 세계-불교의 자연관, 흥법원, 1988, pp. 51-61

6) 신귀현, 이퇴계의 자연철학, 퇴계학보, 1992, 12, pp. 39-40

자연환경 속에서 외부에 대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여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공간을 한정하여 경관화한 것이다.

입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길하거나 불만스러운 요인을 제거, 보충하려는 비보와 압승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위 자연환경의 위요경관을 조작하기도 했다. 비보는 풍수상의 결점을 조작하는 행위이고 압승은 흉한 기를 조작하여 눌러 이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의해 어떤 시설을 플러스함으로써 그 마이너스를 없애거나 훨씬 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⁷⁾

2. 정원에서 자연도인

전통건축은 건축을 자연에 묻고 자연이 건축을 포용하며 자연경관과 동화되려 했는데 주거건축에 있어서는 주변의 자연경관에 더하여 집안의 옥외공간을 정원으로 가꾸어 가시적으로 자연을 도인했다. 주거에 딸린 정원은 건물에 딸린 마당을 정원화한, 상당한 인공이 가해진 정(庭)의 양식을 이루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 요소 중 좋은 형태나 의미가 깊은 요소만 골라서 꾸미는 선정(選景)과 의경(意景)의 기법으로 자연을 도인하였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정원양식은 마당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데 정원적 처리가 강조된 곳은 사랑마당과 뒷마당이다. 남성위주의 정원공간인 사랑마당은 외향적, 시위적 면이 강했고, 여성위주의 정원공간인 뒷마당은 보다 사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강했다. 후원은 경사지를 평평하게 다듬고 난 후 구릉과 연결되는 사면에 위치함으로써 단조로움을 완화시켜 자연스런 경관을 형성한다.

중국 조원서 『원야(園冶)』에 '비록 사람이 만들었으나 하늘이 스스로 베풀어 놓은 듯이 한다(雖由人作 宛自天開)', '토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因地制宜)'라 하였듯이, 전통주거의 정원과 외부공간에 자연경관과 자연적 요소를 도인함에 있어서는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세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연과의 조화, 비정제성, 그리고 실내와 실외의 긴밀한 관계와 융합을 보이는 공간의 침투성 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전통주거에서의 자연경관 도인은 각각 다른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편적 법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격식이 없이 각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결을 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構園無格).

또 마당은 각 체에 딸린 부속공간으로서 각각의 영역을 강조하는 위치에만 수목을 심었다. 이는 내부에서 바깥 자연경관과 담장 너머 펼쳐지는 산 능선과 통하는 외부공간을 빌리는 것이다.

3. 자연경관의 상징성

전통주거에 자연경관을 도인함은 단순히 즐기며 장식할 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정신적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표출하려는 것으로서, 정원과 경관 구성요소들은 단순한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혼연일체 되고자 했던 감정과 사고가 이입된 상징체이다. 즉 정원과 자연경관은 자연과의 합일, 조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단순히 집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전체적 어울림을 이루며 심상에 따른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경관의 인식에는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는 심상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의 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상징성이 부여되는데, 관가정과 독락당의 자연경관을 비교해 보면 공적 장소의 성격이 강한 관가정에서 내려다보는 자연경관은 산수만이 아니라, 마을과 들의 풍경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차경의 수법을 보여주는 반면 독락당 계정은 속세를 떠나 이상향 속에서 풍월을 읊는 장소로서 뛰어난 산수가 주된 경관이 되며 자연을 노래한 편액은 의경의 수법을 보여준다.⁸⁾

이러한 자연경관 도인의 상징성은 풍수지리설에서도 볼 수 있다. 산세와 지세라는 자연적 조건을 음양오행설과 인체 조건과 교묘하게 대응시키는 풍수지리설⁹⁾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자연이 건축에 도입되며 건축은 자연에 수용되면서 자연경관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정원을 이루는 경물들도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나무나 꽃은 관상과 장식의 역할 외에 의경에 의해 대자연의 정수를 상징하며 품격이 추구되었다. 식물은 장식이나 기능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기 보다 높고 깊은 생활이념과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경관 구성상 필수적 요소로서 상징적으로서 다루어졌다. 또 바위를 쌓고 흙을 돋우어 가산을 만들고 무산십이봉같은 이상세계라 여겼으며, 연못을 모난 방지로 만들고 둥근 섬을 만들어 천원지방을 상징하는 도교적 우주만다라를 표상하기도 했다.

4. 자연경관의 도인

1) 자연경관의 도인방법

선인들은 자연 속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삶의 터전 안에서 그것을 열락하고자 하는 취경의 의도에서 자연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이 자연과 교류하려 했다. 자연경관을 도입하는 방법은 중국의 조원이론서인『원야』

7) 손정목, 풍수지리설이 도읍형성에 미친 영향, 도시문제, 1973, pp. 83-90

8) 최수영, 김광현, 홍대형, 관가정과 독락당 계정의 자연경관 도입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8호, pp. 124-126

9) 전상운, 한국의 고대과학, 탐구신서54, 서울; 탐구당, 1974, pp. 110-117

에서도 언급되는데, '원림은 인차(因借)를 교묘하게 잘 해야 하며 체의(體宜)를 정교하게 잘 해야 한다'고 하여 인차차경론(因地借景論)을 보이듯이 그 핵심은 인차로 집약될 수 있다. 인(因)은 지세와 지형, 주어진 자연적 여건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어진 터전의 특성에 따르며 활용하는 것이고, 차(借)는 차경으로서 건축물들간의 적당한 안배와 건축과 대지 내의 정원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대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즉借는 원림 밖에 있는 경관 중에서 필요한 것은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것은 가리면서 원림의 경관요소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자연의 경관을 건축 속에 도입하는 취경은 일반적으로 차경(借景), 사경(寫景), 선정(選景), 축경(縮景), 의경(意景) 등으로 구분된다.¹⁰⁾ 우리나라의 전통주거에는 주로 차경의 개념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경관(景)을 빌어 쓰는 것(借)으로서 집밖의 자연경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끌어오지 않고도 집안에서 조망하고 즐기도록 하는 경관도인의 방법이다. 사경은 원림이나 임천에서 보이듯이 자연경관과 비슷하게 집안을 꾸미는 것이고 선정은 자연 요소 중 좋은 형태나 의미가 깊은 요소만 골라서 꾸미는 것이다. 축경은 실재하는 자연경관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축소하는 방법이고, 의경은 한 점의 괴석이나 한 그루의 나무로도 실제 자연경관의 의미를 상징화하여 대신하는 방법이다.

정원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도인 방법인 차경에는 원차(遠借), 인차(隣借), 양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 등 5가지 방법이 있다. 원차는 주변 멀리 있는 경물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인차는 가까이 있는 경물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양차는 바라다 보이는 높은 곳의 경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차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시절에 따른 차경(應時而借)은 시간과 계절의 풍경에 따라 경물을 차용하는 방법이다. 즉 차경은 결국 건축을 둘러싸는 주변 자연 위요경관에 대해 거리나 각도 등 시야에 관계되는 시각구조적 특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경은 시(時)에 응하여 공간과 시간의 양방면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며, 물정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가서 보이는 경관은 마음이 기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붓이 움직이기 앞서서 의도가 있게 된다(意在筆先)는 동양화(산수화)의 원리와 흡사한 점이 있다. 이처럼 자연경관을 끌어들이는 시시각적 특성과 산수화의 기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마음의 정서를 표현하여

천인합일의 정신을 표출하려는 산수화의 기법에는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이라는 삼원법이 있는데¹¹⁾ 고원법은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고 심원법은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겨다보는 것으로서 중첩되어 표현되고 평원법은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수평으로 펼쳐지게 표현한다. 또한 고원법은 산을 쳐다보는 데서 생기는 공간의 높이, 심원법은 산의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생긴 공간의 깊이, 평원법은 산을 멀리서 건너다보는 공간의 평평한 넓이를 말하는 것으로 산의 위치와 거리, 계절의 변화에서 생기는 산수의 표현에 있어서 독특한 원근법이라고도 한다.¹²⁾

이처럼 일반적으로 경관이라는 것은 시점과 외적 대상과의 사이의 시시각적인 관계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수화의 기법과 흡사한 점이 있으므로, 산수화의 삼원법과 일반적 시시각의 유형인 양관과 부감, 수평각, 그리고 건축적 개념을 결합하여 양관성과 부감성, 깊이감과 중첩성, 보아가기와 전개성, 시각들의 효과를 자연경관 도입의 원리로서 검토하기로 한다.¹³⁾

2) 자연경관 도입의 원리

(1) 시각들의 효과

전통주거에서의 자연경관은 물리적 구성요소나 위요경관으로만이 아니라 시시각의 주된 조망경관의 흥미요소로도 파악된다. 즉 전통주거는 앞쪽으로 먼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차경하는 시각구조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특히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열락하는 것은 안채보다도 사랑채에 더 긴요한데, 사랑방은 시각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 먼 산의 아름다운 전망이 필수적이다. 자연경관을 고려할 때 주거에서 바라보이는 안산 곧 안대는 시각적 중심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뚜렷한 형상의 안대를 정면에 두는 것은 자연경관에 대한 소유영역의 기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안대를 중심으로 방향에 대한 인지 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빼어난 봉우리를 안대로 삼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장소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심리적 효과와 그에 따른 건물의 소속감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¹⁴⁾ 사랑채의 향은 집안과 산의 정기 사이의 상징적 연결 및 집밖과 산의 전망과의 시각적 연결에 따라 정해지며,¹⁵⁾ 사랑방은 주거건축의 중심이자 활동의 중심이며 주변 자연경관의 중심이 된다.

11) 고유섭, 한국미술사급미학논고, 통문관, 1963, p. 104

12) 김청강, 동양미술사, 서울 을유문화사, 1971, p. 179

13) 김기업, 윤희택, 예술분야에 나타난 조선시대 정원의 구성 요소와 구성원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6권 2호에서는 산수화의 삼원법에서부터 정원의 구성원리를 쳐다보기, 들여다보기, 건너다보기로 고찰했다.

14) 최수영, 전계서, p. 122

15) 김성균, 한국전통마을의 경관, 건축, 92, I., p. 86

10) 유병림, 황기원, 박종화, 한국정원의 원형, 서울대환경대학 원부설 환경계획연구소, 1989, pp. 73-83

사랑채는 외부공간과 마당의 근경에서부터 담 너머 중경과 원경까지 넓고 다양한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전면에 넓은 개구부를 두었고 대개 들어열개문으로 계획되었으며, 만월형이나 선형(扇形)의 창호를 시각틀로 삼아 차경하여 시각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마당은 가득히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을 강조하는 위치에만 수목을 심었는데, 이러한 비우면서 짐을 찍는 듯한 마당의 조경은 건물 외부의 자연경관을 차경했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도 시선을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외부의 자연경관으로 이끄는 시각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주거는 자연의 위요경관을 바라보며 차경하는 시지각적 특성을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시각구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관찰자의 시점과 관찰대상, 시각의 틀이 있어야 한다. 전통주거건축에 있어서는 주체인 인간이 머무는 주거공간이 관찰 시점이고 주위 자연환경의 위요경관들이 관찰대상이 된다. 시각들은 시각에 방향성을 주어 안정된 지각을 하도록 하는 건축적 요소로서, 내부공간에서 투시효과를 통해 외부 자연경관을 향해 열려진 비스타를 제공한다. 건축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망을 가능케 하는 시각틀은 창과 바다, 벽, 천장, 기둥, 서까래, 난간 등 여러 가지 건축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구부로 이루어지는 시각틀이다. 전통주거에 있어서는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벽과 기둥, 바닥과 지붕, 그리고 창문 등이 외부지향적인 구조로서 적극적으로 자연을 끌어들이어 완상하기 위한 시각틀이 되며, 그 효과로 인해서 경관을 도인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연결에 의존하는 차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김진균은 전통건축공간의 시각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시선축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의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시선축과 조망과의 관계를 고찰했는데,¹⁶⁾ 이것은 자연경관의 조망에 대한 시각적 구조의

해석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시선축은 시선이 머무르는 대상과 관찰자 사이에 상정되는 하나의 직선축으로서 이 축을 따라서 방향과 조망이 유도된다. 시각틀을 통한 조망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초점을 제공하며 자연경관을 끌어들이는데, 작은 개구부는 벽에 그림이 걸려있는 듯한 시야의 틀을 만들고, 넓은 개구부는 방 전체에 넓은 전망을 준다.

또 개구부는 그 위치와 구성 방법에 따라, 즉 벽면 내부나 모서리, 벽면 사이의 어디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망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나 필터를 사용하거나 시선축을 변화시켜 좋은 조망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조망은 개구부를 이루는 틀에 의해서도 그 성격이 많이 좌우되는 액자의 효과를 갖는다. 액자는 일상적일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며, 그 너머의 시각세계로 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바, 특히 전통주거건축에서는 개구부의 틀이 액자의 효과를 잘 나타낸다. 이렇게 창은 시각틀을 이루는 요소들은 주위 자연 요소, 경관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도인하려는 차경의 의도를 가짐으로써 액자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2) 양관성(仰觀性)과 부감성(俯瞰性)

전통주거는 마당에 경물들을 두어 완상하는 한편, 울타리나 그 옆에 수목을 심어 인접한 근경을 차단하고 그 너머에 있는 원경과 중경을 쳐다보거나 내려보는 시야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이 자연림인 경우에는 울타리 밖의 나무나 숲을 그대로 두기도 했으며 조망하기 좋은 고지대에 누각 등을 짓고 경관을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양관성과 부감성은 자연경관의 차경 방법 중 양차와 부차에, 산수화의 기법 중 고원법에 해당되며 공간의 수직적 높이로 표현된다.

이러한 양관과 부감의 조망은 비탈진 산자락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정원의 입지에서도 볼 수 있다. 전통주거의 정원 경관구성에서는 그림 2처럼 쳐다보고 내려보는 수직적인 공간구분이 강한데, 이는 직선으로 처리된 계단식 정원(景園) 또는 화계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적 양식인 것¹⁷⁾ 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수법은 자연을 운동태로 보는 것으로서 쳐다보거나 내려보기를 하면서 완만한 수직 동선을 따라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보이간다'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일반적으로 전통주거는 조망하기 좋은 곳에 입지하여



그림 1. 월성 관가정의 시각틀로 보는 경관

16) 김진균, 시각구조 분석에 의한 건축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12, pp. 79-84
 17) 정동오, 동양조경문화사, 전남대출판부, 1990, p. 476
 18) 고유섭, 전계서,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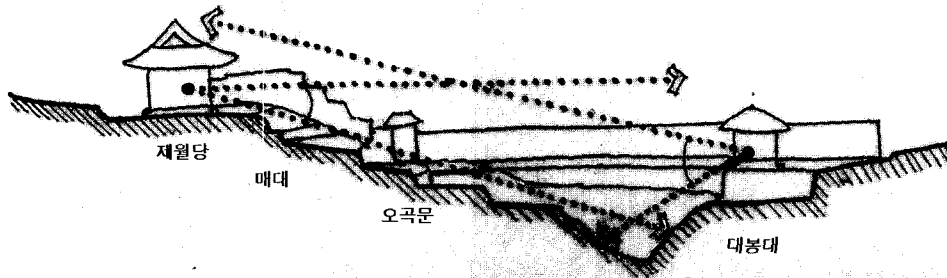


그림 2. 수직적 구성과 올려보기, 내려보기를 보여주는 담양 소재원 단면

눈 아래에 부감경이 펼쳐지고 멀리 산과 하늘이 바라보인다. 부감경은 시점이 높기 때문에 시계의 폭이 크고 멀리까지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산과 들 등이 서로 관계하는 지형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파노라마적인 조망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양각 경관은 내려다보는 부감 경관이 개방적인데 비해 한정적이고 폐쇄적이다. 그것은 양각에서 존재하는 대상이 인간의 신체적인 운동성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또 시선을 양각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안정된 시선의 방향은 수평보다 10-15도 아래이므로, 양관하는 상태는 시각적으로 어떤 강제를 띤 상태가 된다. 마을과 주거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 중 가장 현저한 산이 갖는 의미를 양각이라는 지표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양각 5도 이하의 산은 스카이라인이 시각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산은 고립된 경우 뛰어난 흥미의 대상이 되며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양각 9도 근방의 산은 스카이라인 뿐만 아니라 산의 중턱도 흥미의 대상이 된다. 스카이라인과 산중턱을 교대로 볼 수 있는 양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관을 이루게 된다. 양각 20도 근방의 산에 있어서는 시각적 흥미의 대상이 산 중턱으로 옮겨가며 산을 본다기 보다는 산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며 산 중턱 또는 산모습이 주경관이 된다.

(3) 공간의 깊이감과 중첩성

크고 작은 산들이 겹쳐지며 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산수화는 선으로 그림을 그리며 화폭에 하얀 여백을 남기며 시간적 차원을 갖게 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암시적 효과를 갖게 한다.²⁰⁾ 정자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옆의 나무숲이나

바위에 의지하여 묘사하며 실제로도 정자는 입지상 산 정상 위가 아니라 가급적 은닉된 자리에 표현하고 있다.²¹⁾ 이는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겨다보는 심원법에 해당되며 중첩되는 산속을 들여다봄으로써 화면에 깊이감을 표현하며, 암시적이며 중첩적인 시각효과를 통해 공간에 깊이감을 주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안으로 끌려가는 효과를 주는데, 이는 주변 자연경관과 정원의 구성에서도 적용된다.

전통주거의 정원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중첩성과 깊이감, 기대감을 위해서 동산과 화계, 연못, 굴곡있는 좁은 길 등 자연과 인위적 요소들을 도입했다. 뒤가 깊은 공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좁고 긴 수행의 공간을 통해 들어가면 넓고 다양한 자연스러운 정원이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중첩성의 효과는 윤증 고택, 강릉 선교장, 달성 이동 삼가헌, 월성 서백당(그림 3)과 관가정 등 많은 주거의 연못조성이나 담장에 연결된 문 주변 공간과 자연경관에서도 볼 수 있다. 방지 가운데에 수목으로 덮여진 섬은 자연경관에 대해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섬이 시선을 차단함으로써 연못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람의 기대감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공간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연못 주위를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중첩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정원은 많은 담장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협문에 의해서 연결된다. 담장이나 협문의 높이는 완전히 격리된 감을 줄 정도로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며, 실내에서 보면 담장이나 문 위로 가까운 나무나 숲의 근경과 멀리 있는 산과 하늘의 원경을 차경함으로써 그들이 중첩되어 공간의 깊이감을 주는 것이다.

(4) 보아가기와 전개성

19) 桶口忠彦, 景觀의 構造, 技報堂, 1976, pp. 61-63

20) Ashihara는 이와같은 여백을 무한하고 확산되는 공간이며 소극적 공간이라 말하였다.

21) 한동진,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 1995,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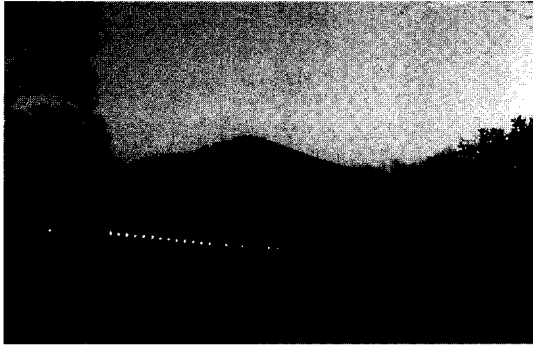


그림 3. 월성 서백당에서의 경관 중첩성

산수화와 수목화는 그리다만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넓은 공간과 여백의 미가 뛰어나다. 한쪽에 무게를 증가시키면서 주산과 근경, 원경의 경물들을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는 산수화는 딱 찬 화면의 공간구성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미의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이렇게 자연의 경관요소들을 전개하여 표현하는 의식은 산수화에서는 여백의 미로 표현되지만 전통주거의 정원과 같은 삼차원의 공간에서는 시각적인 전개성과 개방감을 부여함으로써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연경관 요소들로 만들어지는 정원과 외부공간은 산수화의 산점투시법을 사용하면 '걸음 걸음마다 새로운 경치가 나타나게' 조성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따라

경치가 변화되게' 만들 수도 있다.²³⁾ 즉 정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완상할 수 있도록 경관요소들을 펼침으로써 파노라마적 전개성을 갖게 된다. 이는 동양의 산수화나 경관구성에 있어서 앞산을 보고 그 위에 올라 다시 뒷산을 보아간다, 또는 앞산을 보고 눈을 돌려 그 옆 산을 본다는 파노라마적인 '보아간다' 라는 관물 태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담양 소쇄원을 예로 보면 대숲으로 쌓인 입구에서부터 양각의 형태로 쳐다보기를 하면서 진입함에 따라 여러 방향의 시각이 전개된다. 주공간에서 시각형태는 긴담장으로 유도되며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전개된다. 대봉대에서 계류를 건너 수직적 화계들과 주변경관을 둘러보며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되는 광풍각과 제월당에서 다시 위와 아래, 좌우를 둘러보기를 하며 경관의 펼쳐짐을 즐기게 된다. 이 공간안에서 구성요소간의 노출과 감춤을 반복함으로써 연속적이고 투시적, 중첩적인 깊이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한 지점에서의 시계를 노래하기 보다 산을 올라가며 보고 정상에서 보는 등 '보아나가는' 시각형태는 우리나라 지형이 산들과 강이 하나의 경관단위를 이루며 몇겹이고 구비졌고 숨겨진 연속적 경관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심안으로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건너다보는 수평시로서 화폭에 자연과 경물요소를 평평하게 펼치는 기법에서 전통주거의 정원과 경관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보아가기와 전개성이란 수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자연과 연계되는 전통주거의 자연경관은 자연적 실체일뿐 아니라 선인들에 의한 사과의 기록이고 의미가 부여된 경관이다. 전통주거의 자연경관 구성에는 자연에 생명력을 주고 인격시하는 전통적 자연관이 영향을 미쳐 왔으며, 자연과 조화시키고자 한 무위자연의 태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되었다.

전통주거는 자연과 호흡하기 위해 주변 자연을 도입, 차경하여 위요경관화하면서 그것을 상징화, 문화화시킨 반면 내부에 자연경관요소들을 끌어들이 열락하고자 했다. 전통주거의 자연경관은 물리적, 자연적으로 조경하고 차경할 뿐만 아니라 심안으로 보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경을 활용했다.

본고는 전통주거와 정원이 자연경관에 대해 고정된 시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나감에 차경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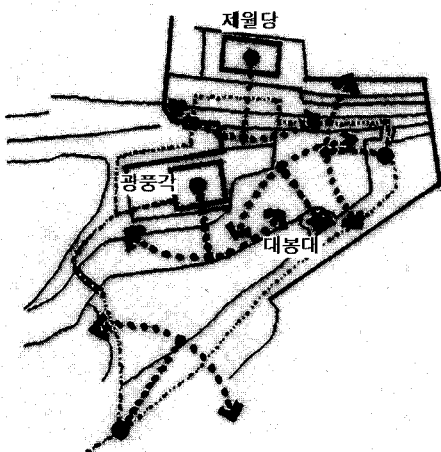


그림 4. 담양 소쇄원의 보아가기와 전개성

22) 안휘준, 안건과 풍유도원도, 예경출판사, 1993, p. 140

23) 왕백민,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3, pp. 144-145

지각적 특성을 가지며 산수화의 기법과 흡사한 점이 있음을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서 자연경관 도입의 원리로서 시각들의 효과, 시점의 이동에 따른 양관성과 부감성, 공간의 깊이감과 중첩성, 보아가기와 전개성을 도출하였다. 전통주거는 이 원리에 따른 경관처리를 보임으로써 차경의 의도를 극대화하는 시각들의 효과가 뛰어나며 시점과 동선에 따라 자연을 보아감으로써 시각적, 공간적으로 변화풍부한 높이와 깊이가 있는 자연경관구조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선택하고 자연경관을 도입함으로써 선인들은 안정된 생활과 감각을 소유함과 동시에 환경과 적응, 조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용운, 한국인의 자연관과 과학사상, 『한국의 기층문화』, 서울;한길사, 1987
2. 김한배,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 국전통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 1981
3. 이승녕,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4.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4
5. 정영선, 한국인의 경관관에 대한 고찰, 서울 대석사, 1974
6. 최병식, 동양미술사전, 갑을출판사, 1989
7.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민음사, 1984
8. 황기원, 한국인이 보는 경관, 건축, 92.1